

#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

##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

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| Tel (661) 871-9190 | 1305 Water St., Bakersfield, CA 93305  
Fax (661) 873-7286 | 홈페이지 [www.sanclementemission.org](http://www.sanclementemission.org) | 통권 제 28 권 15 호



주일 미사: 오전 8 시 (한국어, 영어), 오전 9 시 30 분(영어), 오전 11 시(스페인어)  
토요일 미사: 오후 6 시(스페인어)  
평일미사: 월, 화, 목요일에는 오후 6 시.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 
고백성사: 월, 화, 목요일 평일미사 전 (오후 5:30 ~ 5:50)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.  
성체조배: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 
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: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 
성당사무실 시간: 화요일 ~ 금요일(9:30AM ~ 6:00PM)  
한인 공동체 이메일: [sanclemente.kc@gmail.com](mailto:sanclemente.kc@gmail.com)

미 사 성 가	입당 (135)	봉헌 (512)	성체 (506)	파견 (141)
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<p><b>제1독서</b>   사도 3,13-15,17-19 <b>화답송</b>   시편 4,2,4,7,9(◎ 7ㄷ) ◎ 주님,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. (또는 ◎ 알렐루야.) ○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,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 하소서.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,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. ◎ ○ 너희는 알아라.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. 내가 부르짖으면, 주님이 들어 주신다. ◎ ○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. “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?” 주님,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. ◎ ○ 주님,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,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. ◎ <b>제2독서</b>   1요한 2,1-5ㄱ <b>복음환호송</b>   루카 24,32 참조 ◎ 알렐루야. ○ 주 예수님,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.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. ◎ <b>복음</b>   루카 24,35-48</p>	<p><b>성소를 위한 기도</b> ○ 좋으신 목자 예수님,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. ● 비오니,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,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. ○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,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●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. ○ 주님,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. ●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. ◎ 아멘.</p>
--	--

◆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◆

날짜	미사해설	독서	복사
4/1	이 마틸다	이 바오로 / 김 유스티나	박 다니엘
4/8	이 그레이스	이 요한 / 김 헬레나	박 다니엘
4/15	이 마틸다	이 바오로 / 김 유스티나	박 다니엘
4/22	유 요한	이 요한 / 김 헬레나	박 다니엘

영어독서:

우리의 정성 사순 회생 예물 : \$20

지난 주일	봉헌금	2 차 봉헌	교무금	감사 헌금
	\$210	\$	\$300	\$500

**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**

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, 오후: 3 시 입니다.

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2/24	황 가롤로/ 김 안드레아	3/31	유 요한/ 유 마리아
3/3	오 베드로/ 오 루시아	4/7	김 요아킴/ 고 안나
3/10	손 아놀드/ 손 쟈마	4/14	홍 마르코/ 홍 아녜스
3/17	이 글라라/ 장 글라라	4/21	이 그레이스/ 김 마르타
3/24	이 요한/ 이 마틸다	4/28	김유스티노/ 김유스티나

**공 동 체 소 식**

**성체조배 안내:**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성체조배는 5 월 3 일 입니다.

**한인공동체 임원회의:**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회의는 5 월 13 일 둘째 주에 하게 됩니다.

**공동체 기도성가 모임:** 목요일 오후 8 시 (문의:박바오로) 성가와 말씀 나눔,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,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.

장소: 10907 Prairie Stone Pl, Bakersfield. CA 93311

**성경공부** 금요일 오후 7 시 (문의: 유요한)

매주 해당 성경말씀을 필사하여 그것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. 장소는 성당 교리실 입니다.

**소 공동체 모임** (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)

다음모임은 4 월 15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.

**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**

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, 자매님들 그리고,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.

**말씀의 이삭**

**기도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**

-이상호 비오 -kBS 아나운서-

아침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.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. 생활의 활력소. 종일 주님 안에 머무름. 기쁨. 되어가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심. 꾸준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싶음. 그리고 나누고 싶음.

(2017.05.23)

미사를 드리는 중에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무더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라고 간절히 청함. 세상의 빵으로 밥으로 살고 싶은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심. 감사함. 분명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들. 부활로 다시 시작 할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가오는지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이,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 참 부활의 길이고 기쁨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심.

(2017.04.16)

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기도들입니다. 사실 매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글로 정리한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래도 이렇게 기도와 성찰을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,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자칫 하루가 무기력과 분노, 그 밖에 부정적인 감정들로만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용히 깊고 민감하게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무엇보다 내 삶에 주님이 깊이 들어와 계시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기도만 한 게 없습니다.

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제 자신이 언제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기도와 성찰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저는 오로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랑의 도구일 뿐 제 의지로,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.

오로지 주님께서 저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저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.

저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합니다. 더 기쁘고 나은 삶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

저는 기도와 성찰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맛 들였습니다. 그 사랑에의 초대는 결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.

주님의 사랑은 저를 설레게 합니다. 서울주보에서

**교리상식 성가가 두 배의 기도라고요?**

전쟁 때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 등 사제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주는 세례를 대세라고 합니다. 대세를 줄 때는 가능한 한 증인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, 세례를 준 사람은 자신이 대세를 준 사실을 빨리 본당에 알립니다. 세례를 베푸는 이는 깨끗한 물을 세례자의 이마에 부으면서 “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○○에게 세례를 줍니다”라고 합니다. 비상시에는 신자 누구나 세례 때 받은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고, 세례 받는 이의 상태에 따라 ‘임종 대세’와 ‘조건 대세’가 있습니다.

글\_ 「교회상식 속풀이」 | 바오로딸 발행